

일본

인쇄·제판·제책업체 매년 큰 폭 감소

인쇄업은 10년간 4488개 사 줄어 <표1>

일본경제는 버블 경제 붕괴 이후의 긴 경기침체를 경험하고, 국제경쟁의 격화,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업계 재편의 흐름 등에 의해 일본 국내의 전 제조업 기업 수는 감소세에 있다.

경제산업성의 「2006년 공업통계표 산업편」(개요판)에 의하면, 2006년의 전 제조업 사업체 수는 2005년 조사 때보다 6.6% 감소, 25만 8543개 사가 되었다.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하면 30.1% 감소, 11만 1069개 사나 줄었다. 매년 1만 8500개 사 이상이 계속 줄어든 것이 된다.

인쇄업은 2006년에 전년비 1083개 사가 감소한 1만 2742개 사가 돼 1996년과 비교하면 10년간 26.0% 감소해 4488개 사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. 인쇄업도 여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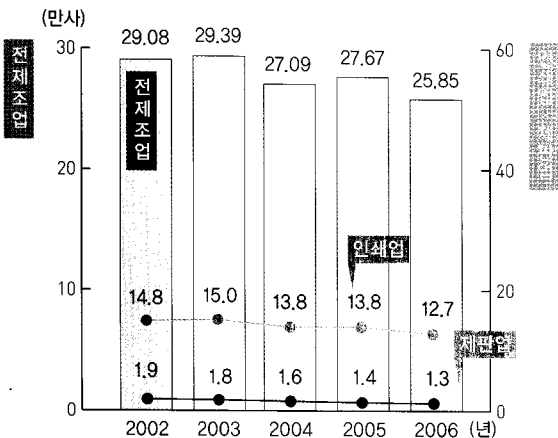
운 상황에 있지만, 다른 제조업과 비슷하게 업계 재편, 도태 등이 격렬하게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.

제판 회사는 10년 사이 절반 이하로 <표2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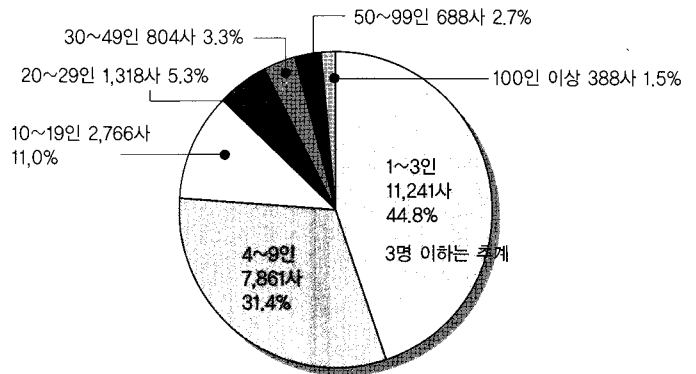
제판업의 사업체 수(4인 이상업체)는 2005년에는 1442개 사, 2006년 1267개 사로 조사되어 12.1%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. 1996년에 3037개 사였기 때문에 10년간 1770개 사라는 대폭적인 감소(58.3% 감소)를 나타냈다.

이처럼 인쇄업과 비교해 감소율이 높은 것은 디지털 기술의 진전에 의해 DTP/CTP가 널리 확산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볼수 있다. 제책업은 2006년에는 1348개 사로 전년비 88개사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.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하면 473개 사가 감소(26.0% 감

<표1> 인쇄·제판회사와 전제조업사 추이(종업원 4명 이상)



<표2> 인쇄회사 규모별 구성비(2005년)



소)했다. 이런 결과는 인쇄업의 침체에 따른 영향을 그대로 받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.

인쇄산업 전체(4인 이상업체)를 보면 2006년은 1만 6466개사로 전년비 8.1% 감소했으며 10년 전인 96년과 비교하면 7011개 사의 감소, 29.9%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. 인쇄업의 규모별 구성비(2005년)를 보면, 종업원 10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76.2%를 차지하고 있다. 또, 종업원 100인 이상의 기업은 388개 사이며, 전체의 1.5%에 불과하다. 이 구성비는 거의 변화가 없어, 숫적인 면에서 보면 인쇄업은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.

전국에 몇 명 정도 인쇄업 관련자 있나?

인쇄업에 26만 명, 인쇄산업에서 32만 명 <표3>

경제산업성의 「2006년 공업통계표 산업편」(개요판)에 의하면, 2006년 인쇄업의 종업원 수는 26만 8151명으로 전년비 2.8%의 감소율을 보였다.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하면 18.6% 감소했고, 제조업 전체에 비하면 낮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6만 1258명이 감소하고 있다.

제조업 전체의 종업원 수를 보면, 2005년에는 약 822만 명으로, 전년에 비해 0.8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인구 감소, 고 실업률에 따라 취업인구의 감소가

가세하고, 서비스 경제화의 진전에 의해 종업원 구성이 3차 산업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나, 인쇄산업 자체가 축소경향을 띠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.

제판회사의 종업원 수는 2006년에 2만 8119명으로,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해 44.9% 감소해 2만 2875명이나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수년째 계속된 감소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.

제책업은 2006년에는 2만 86명으로,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하면 4442명 감소(18.1% 감소)했다. 인쇄산업 전체(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)에서는 2006년 32만 9830명으로 그 중 인쇄업체는 약 81.3%를 차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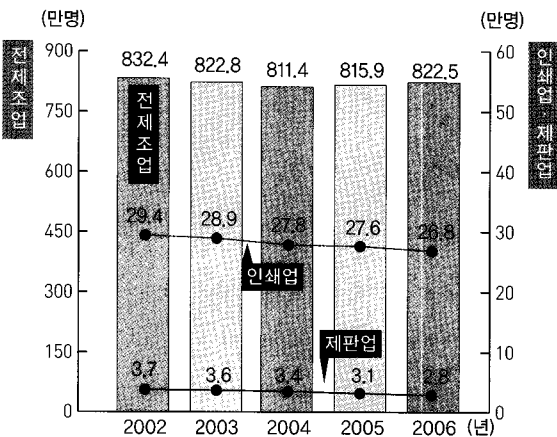
부문별 취업자는 영업 분야 가장 많아 <표4>

전국인쇄공업연합회 「2007년도 인쇄업 경영동향 실태조사 집계 결과보고서」에 의하면, 회답 기업 434개사의 취업자 수는 1사 평균 64.2명이다. 이 중 상근 임원, 아르바이트·촉탁 등을 제외한 종업원 수는 54.0명으로 남성 40.8명, 여성 13.2명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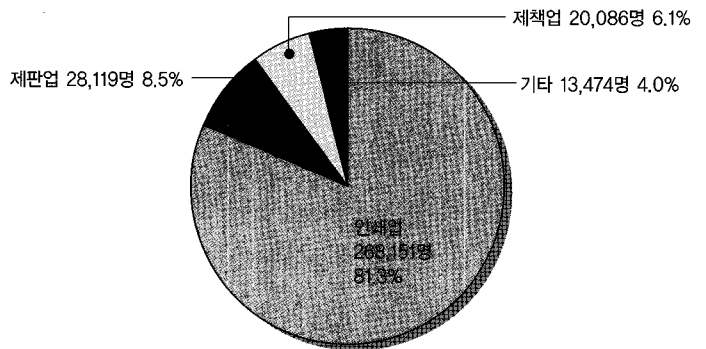
업체별로 1사 평균 종업원 수를 비교하면 포장인쇄가 103.8명으로 가장 높고, 그 다음으로 종합인쇄 76.6명, 상업인쇄 71.8명, 출판인쇄 69.6명의 순이었다.

부문별의 취업자 수에서는 영업이 1사 평균 12.4명으

<표3> 종업원 수의 추이(종업원 4명 이상 회사)



<표4> 인쇄산업·종업원수의 업종별 구성비(2006년) (종업원 4명 이상 회사)



로 비율도 19.5%로 가장 높았다. 그 다음으로 평판 인
쇄 9.2명, 제책가공 7.3명, 디지털 오퍼레이터 6.8명
등으로 나타났다.

인쇄업의 1인당 매상고는 2238만 엔 <표5>

경제산업성의 「2006년 공업통계표 산업편」(개요판)
에 의하면, 1인당 매상고(제조품 출하액/종업원 수)는
2006년 인쇄업에서 2238만 엔이며, 이것은 2005년에
비해 1.1% 상승, 10년 전인 1996년의 2225만 엔에 비
해 0.6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.

한편, 전 제조업에서는 3625만 엔으로 전회로부터
5.6%, 10년 전보다는 23.5%, 모두 증가하고 있다. 그
러나 전 제조업에 비해 인쇄업에서의 자동화, 합리화는
아직도 진전속도가 늦어 한층 더 생산성 향상이 필요한
것으로 파악됐다.

제책업은 2005년에 비해 3.8% 증가, 10년 전과 비교
해 5.6% 감소해 인쇄업에서 회복의 기미는 약하고, 저
가격화 경향에 의한 매상고의 침체라는 어려운 경영환
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.

한편, 제판업에서는 2006년의 1인당 매상고는 1832
만 엔,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해 42.8% 증가, 2005
년의 1627만 엔 비해 12.6%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.
이것은 매상고의 감소 이상으로 종업원 수의 감소
(15.1% 감소)가 크고, 그 결과 외형상 증가로 나타나고

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인쇄업의 매상고 하락세 지속해 <표6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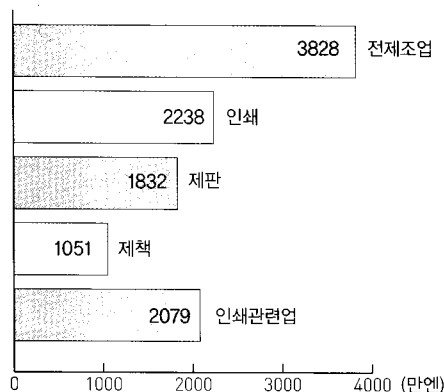
경제산업성의 「2006년 공업통계표 산업편」(개요판)
에 의하면, 2006년의 인쇄업 매상고(제조품 출하액 등)
는 6조1048억 엔이며, 2005년과의 비교에서는 1046
억 엔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1.7% 감소했다. 또 10년 전
인 1996년과의 비교에서도 18.1% 감소하면서 1조엔 이
상의 감소를 기록했다. 1998년에는 한때 회복했지만
다시 감소로 변해 2006년은 어려운 상황이었다.

한편, 전 제조업의 매상고는 314조8346억 엔으로,
2005년에 비해 약 19조 엔의 성장세를 보이며, 6.4%의
회복세를 보였다. 이에 따라 전체 제조업의 매상고는 4
년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다.

제판업의 2006년 매상고는 5151억 엔으로, 2005년
에 비해 167억 엔, 3.4%의 성장을 기록했으나, 10년 전
인 1996년에 비해서는 21.3%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
했다. 또 제책업은 2006년 매상고는 2111억 엔으로,
2005년에 비해 41억 엔, 비율로 보면 2.0% 감소, 10년
전과의 비교에서는 22.6%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기록
하며, 어려운 상황을 이어갔다.

김상호 부장 kshulk@print.or.kr

<표5> 종업원 4명 이상 회사의 1인당 매상고(2006년)



<표6> 인쇄업(종업원 4명 이상)의 매상고 추이

